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 운율 실현 양상 고찰*

이 미 경**

<目次>

I. 서론	III. 분석 및 논의
II. 연구 방법	1. 음길이
1. 피실험자 및 실험 단어	2. 음높이
2. 녹음 방법	IV. 결론

I. 서론

본 논문은 성조언어인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비성조 언어인 한국어를 발화할 때 단어 음높이나 음길이에 어떠한 특징을 나타내는지 고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중 특히 외래어의 강세 패턴이나 음길이 차이 등의 운율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어 어휘 종류로는 고유어, 한자어, 외래어가 있는데 『우리말샘 사전』의 표제어 통계 중 일상어와 전문어의 원어 현황을 보면 외래어는 각각 5,905개, 1.2%와 45,524개, 16.8%를 차지한다.¹⁾ 이소영(2012)에 의하면, 1년 이상 한국에서 거주한 외국인 유학생 중 69%가 한국어 외래어 학습의 어려움이 있으며²⁾, 단채미·박덕유(2020)에 의하면 토픽 시험에서 중·고급

* 이 연구는 2020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지원으로 수행되었음.

** 대구대학교 인문대학 국제어문학과 부교수

1) https://opendict.korean.go.kr/service/dicStat#static_menu1_2

2) 단채미·박덕유(2020) 재인용.

으로 갈수록 외래어에 대한 문항이 많아지고 있다. 외래어의 사용 빈도가 높아지고 외래어 사용의 중요성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외래어 운율에 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한 편이다.

지금까지 중국인의 한국어 운율은 주로 강세구(Accentual phrase, AP)나 억양구(Intonational phrase, IP)의 범주에서 이루어졌다(정명숙:2003, 권성미:2011, 김민경:2011, 윤영숙:2012). 하지만 단어 수준에서의 강세에 관한 연구를 찾아보기는 매우 어렵다. 권영실(2010)에 의하면 중국어 단어는 일반적으로 1-2음절로 이루어지므로 강세가 별로 중요하지 않고, 이경재·최성희·최철희(2013)에 의하면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초분절적인 요소의 습득에 어려움을 보이므로 운율에 관한 연구 및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하며 두 연구는 상반된 주장을 한다. 또, 미설(2013:95)과 Liu Siyang (2011:101)은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는 한자어 중 동형동의어에서 중국어 성조의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주장하였고, 임철성·郭一誠(2014)은 한국어의 음길이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한국어교육에서 음길이 교육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이와 같은 선행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한국어와 중국어가 동일한 음절 수를 갖는 외래어의 음높이와 음길이를 살펴보고 중국인 화자와 한국인 화자의 한국어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중국인과 한국인이 발음한 한국어 외래어의 음높이와 음길이를 녹음하고 이를 분석한다.

1. 피실험자 및 실험 단어

피실험자는 중국인은 남성 4명과 여성 3명, 한국인은 여성 2명으로 구성하였다. 그중 중국인 남성 1명은 중국어를 녹음하였고, 중국인 남성 3명, 중국인 여성 3명, 그리고 한국인 여성 2명은 한국어를 녹음하였다. 중국인 피실험자는 모두 한국어를 학습하기 시작한 지 약 반년 정도 되었고 한국어 능력 수준은 초급 정도에 해당한다. 중국인 피실험자 7인은 모두 중국 북방 방언 화자로 구성하였다.

〈표 1〉 피실험자 구성

	인명	국적	성별	녹음 언어	이니셜
1	DYJ	C	F	K	CF1
2	TSY	C	F	K	CF2
3	XJN	C	F	K	CF3
4	JSW	C	M	K	CM1
5	LYF	C	M	K	CM2
6	ZHZ	C	M	K	CM3
7	PJM	K	F	K	KF1
8	PSM	K	F	K	KF2
9	YHH	C	M	C	CM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외래어 음절 길이와 음높이 강세 패턴을 조사하기 위한 분석 자료는 담화적 요소나 음절의 의미적 요소가 간섭하지 않도록 외래어 중 한자어가 아닌 국명³⁾으로 정하였고 더 세분하여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수가 같은 외래어로 설계하였다. 국명의 음절 수가 같다는 것이 두 언어의 음절 구조가 같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어서 한국어

3) 전 세계의 국가의 수를 나누는 것은 어떤 기준에 따르냐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본 논문은 유엔 가입국을 기준으로 하였다.

의 초성에 강자음(격음 혹은 경음)이 오거나 약자음이 올 수 있고 종성이 있거나 없는 단어도 있으므로 각각의 특징도 함께 살펴볼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물론 음절 구조의 차이로 인한 변수도 있을 수 있지만 본 연구는 단어의 음절 수가 같을 때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운율 실현 양상만을 보는 것에 주력하였다.

유엔 가입국을 기준으로 하면 전 세계의 국가의 수는 총 193개인데 그것을 음절 수로 분류하면 <표 2>와 같다.

<표 2> 국명 외래어의 음절 수

음절	2음절	3음절	4음절	5음절	6음절	기타	합
단어 (개)	40	77	50	18	4	4	193

총 193개 단어 중 한자어나 구로 이루어진 국가명을 제외하고,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절 수가 같은 외래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실험 단어

음절 수	한국어	중국어	각 합 (개)
2	오만 베냉 페루 부탄 토고 피지 쿠바 가나 가봉 체코 말리 수단 통가 예멘 이란 차드 칠레	阿曼 贝宁 秘鲁 不丹 多哥 斐济 古巴 加纳 加蓬 捷克 马里 苏丹 汤加 也门 伊朗 乍得 智利	17
3	안도라 앙골라 바하마 파나마 벨기에 벨리즈 부룬디 필리핀 감비아 캐나다 지부티 카메룬 카타르 코모로 레소토 레바논 리비아 르완다 말라위 모로코 모나코 멕시코 니제르 세이셸 사모아 수리남 튀니지 투발루 우간다 헝가리 시리아 이라크 잠비아	安道尔 安哥拉 巴哈马 巴拿马 比利时 伯利兹 布隆迪 菲律宾 冈比亚 加拿大 吉布提 喀麦隆 卡塔尔 科摩罗 莱索托 黎巴嫩 利比亚 卢旺达 马拉维 摩洛哥 摩纳哥 墨西哥 尼日尔 塞舌尔 萨摩亚 苏里南 突尼斯 图瓦卢 乌干达 匈牙利 叙利亚 伊拉克 赞比亚	33

음절 수	한국어	중국어	각 합 (개)
4	파키스탄 불가리아 보츠와나 볼리비아 에콰도르 그레나다 콜롬비아 온두라스 키리바시 짐바브웨 라트비아 루마니아 모리셔스 모잠비크 나미비아 니카라과 세르비아 키프로스 스리랑카 탄자니아 바누아투 과테말라	巴基斯坦 保加利亚 博茨瓦纳 玻利维亚 耳挂多尔 格林纳达 哥伦比亚 洪都拉斯 津巴布韦 基里巴斯 拉脱维亚 罗马尼亚 毛里求斯 莫桑比克 纳米比亚 尼加拉瓜 塞尔维亚 塞浦路斯 斯里兰卡 坦桑尼亚 瓦努阿图 危地马拉	22
5	에티오피아 에리트레아 코스타리카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埃塞俄比亚 厄立特里亚 哥斯达黎加 哈萨克斯坦 斯洛文尼亚 塔吉克斯坦 印度尼西亚	7
합	79개	79개	79

2. 녹음

녹음은 D대학교와 S대학교 녹음실에서 이루어졌으며, 녹음기는 TASCAM DR40X, 마이크는 Shure beta58A를 사용하였고, 디지털 레코더를 사용하여 16 bit, 44,100 Hz로 디지털화하였다.

녹음을 시작하기 전에 중국인 피실험자에게 먼저 단어를 볼 시간을 주었고 편안한 분위기 속에 잘못 읽었다고 말하면 다시 읽을 수 있도록 실험실을 통제하였다. 중국인에게는 중국어만 제공하고, 한국인에게는 중국어, 한어병음, 한국어를 함께 제공하였다. 녹음할 때는 순서가 무작위로 이루어진 국가 이름 193개를 한 번씩 읽었으며 그중 한국어와 중국어의 음절 수가 같은 단어(193개*9인*2회=3,474개)를 읽었고, 실제 분석에는 1,422개의 단어를 활용하였다.

피실험자의 음성은 Adobe Audition 2022로 녹음하여 wav 파일로 만들었으며, 이 파일을 Praat version 6.2.07로 음높이와 음길이를 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 사용한 음높이 값과 음길이 값은 피실험자 다양하게 나타나는 차이를 비교하기 편하도록 각 화자의 음역 및 최대 음길이를 이용하여 정규화(normalization)하였다.⁴⁾

Ⅲ. 토론 및 논의

1. 음길이

양순임(2010)에 의하면 현대 한국어에서 운소로 기능하는 ‘길이’에 대해 발음 교육 분야에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이것은 운소로서의 길이가 현실적으로 변별성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음길이, 음높이, 음세기, 음색 등의 초분절 요소는 외국어 발음을 학습할 때 운율에 있어 중요한 기능을 한다. 운율 중 길이의 요소는 교육적인 필요성이 있으며⁵⁾, 음성학적 연구에도 학술적인 의의가 있다. 또한 중국어에서 음높이와 더불어 음길이가 강세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외래어 음길이를 살펴보는 것이다.

다음은 2음절 외래어의 음길이 비교이다. <표 4>에서 2음절 외래어 중 한국어는 1음절의 길이가 비교적 길고, 중국어는 2음절의 길이가 비교적 길 편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한국인은 강자음일 경우 1음절이 2음절보다 긴 경우가 많고, 2음절에 종성이 있을 때 음절 길이가 길어지는 경향이 있다. 반면 중국인은 강자음일 때 혹은 약자음일 때 구분 없이 외래어의 첫음절을 길게 발음한다. 중국어는 이와 반대로 첫음절보다는 끝음절이 긴 경향이 있고 이는 중국어와 한국어의 음길이 차이를 잘 보여준다.

4) 이미경(2013, 2022a, 2022b) 참조.

5) 양순임(2010) 참조.

〈표 4〉 2음절 외래어의 음절 길이 비교

긴 음절	CF_Krn	CM_Krn	KF_Krn	CM_Chn
1음절	베냉 페루 부탄 토고 피지 쿠바 가나 가봉 체코 말리 통가 수단 차드 칠레 이란	페루 부탄 토고 피지 쿠바 가봉 체코 말리 수단 통가 차드 칠레 가나	토고 쿠바 체코 수단 통가 차드 칠레 가나 페루 피지 말리	斐济 苏丹 马里 捷克
2음절	오만 예멘	오만 예멘 베냉 이란	오만 베냉 예멘 이란 부탄 가봉	阿曼 伊朗 加纳 贝宁 秘鲁 不丹 多哥 汤加 也门 乍得 智利 加蓬 古巴

다음은 3음절 외래어의 음길이 비교이다. 〈표 5〉는 한국어 외래어 3음절어의 세 음절 중 어느 것이 긴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한국인은 3음절 외래어의 음절 중 주로 첫음절과 둘째 음절이 길고, 그 중 둘째 음절을 가장 길게, 끝음절을 가장 짧게 발음하는 경향이 있고, ‘부룬디’, ‘르완다’, ‘루완다’처럼 둘째 음절에 종성이 있을 때 둘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경향도 있다. 그리고 ‘카메룬’이나 ‘필리핀’처럼 끝음절에 종성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길어지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도 첫음절을 길게 발음하는 것은 한국인과 차이가 없지만 둘째 음절보다는 첫째 음절의 길이를 길게하는 점이 다르다. 중국어는 끝음절이 가장 긴 편이고 이는 한국어 외래어와 중국어 간 음길이의 두드러지는 차이점이다.

3음절 외래어 중 둘째 음절이 짧은 단어로는, 수리남, 레바논, 말라위, 리비아 등 그 예가 많지 않았는데 이중에는 ‘레바논’을 제외하고 종성이 없다는 공통점이 있다. 중국어는 ‘安哥拉’, ‘甘比亚’, ‘吉布提’, ‘卡梅隆’, ‘利比亚’, ‘萨摩亚’, ‘苏里南’, ‘叙利亚’, ‘赞比亚’ 등 둘째 음절이 상대적으로 짧은 단어들에 많았는데 이 단어의 둘째 음절은 모두 운미가 없다. 중국어가 둘째 음절이 짧은 것은 중국어 3음절어는 경계에 있는 음절의 강세가

있어 중음절이고, 둘째 음절이 약음절이 되기 때문이다.

〈표 5〉 3음절 외래어의 음절 길이 비교

긴 음절	CF_Krn	CM_Krn	KF_Krn	CM_Chn
1음절	안도라 앙골라 파나마 벨기에 감비아 지부티 카타르 레바논 벨리즈 리비아 수리남 말라위 사모아 니제르 카메룬 시리아 잠비아 튀발루 헝가리 바하마	안도라 앙골라 벨기에 필리핀 감비아 카타르 코모로 리비아 벨리즈 수리남 말라위 사모아 시리아 잠비아 니제르 헝가리 지부티 카메룬 튀발루 레바논 바하마	안도라 앙골라 벨기에 벨리즈 감비아 카타르 헝가리 시리아 잠비아 사모아 니제르 리비아	安多拉 匈牙利 塞舌尔 冈比亚 卡梅隆 萨摩亚 赞比亚 卡塔尔
2음절	부룬디 필리핀 캐나다 코모로 레소토 르완다 모나코 모로코 멕시코 튀니지 우간다 이라크	부룬디 카메룬 레소토 르완다 모로코 모나코 멕시코 우간다 이라크 캐나다 튀니지	부룬디 지부티 카메룬 코모로 필리핀 레소토 르완다 모로코 모나코 멕시코 우간다 이라크 튀니지 튀발루 캐나다	摩纳哥 巴哈马 巴拿马 莱索托 伊拉克
3음절	세이셸	파나마 세이셸	파나마 바하마 레바논 세이셸 수리남 말라위	比利时 伯利兹 菲律宾 加拿大 科摩罗 黎巴嫩 摩洛哥 马拉维 墨西哥 利比亚 布隆迪 苏里南 突尼斯 图瓦卢 乌干达 卢旺达 安哥拉 吉布提 叙利亚 尼日尔

그 밖에 길이가 유사한 단어로는 바하마, 니제르, 카타르 등이 있다.
다음은 4음절 외래어의 음길이 비교이다. 〈표 6〉은 한국어 외래어 4음

절어의 네 음절 중 어느 것이 긴지를 기준으로 분류한 것이다.

〈표 6〉 4음절 외래어의 음절 길이 비교

긴 음절	CF_Krn	CM_Krn	KF_Krn	CM_Chn
1음절	볼리비아 온두라스 짐바브웨 라트비아 니카라과 세르비아 키프로스 탄자니아 과테말라 보츠와나 불가리아 파키스탄	볼리비아 온두라스 짐바브웨 라트비아 키프로스 스리랑카 탄자니아 불가리아 파키스탄	볼리비아 온두라스 짐바브웨 라트비아 니카라과 세르비아 탄자니아 과테말라 보츠와나 불가리아	耳挂多尔 津巴布韦 拉脱维亚 塞尔维亚 塞普罗斯 斯里兰卡
2음절	에콰도르 그레나다 콜롬비아 키리바시 루마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에콰도르 그레나다 콜롬비아 루마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세르비아 과테말라 보츠와나	에콰도르 그레나다 루마니아 모잠비크 나미비아 콜롬비아	哥伦比亚 莫桑比克 坦桑尼亚
3음절	모리셔스 스리랑크 바누아투	모리셔스 니카라과 바누아투	스리랑카 바누아투	玻利维亚 格林纳达 罗马尼亚
4음절		키리바시	키리바시 모리셔스 키프로스 파키스탄	基里巴斯 毛里求斯 纳米比亚 尼加拉瓜 瓦努阿图 保加利亚 瓜地马拉 博茨瓦纳 洪都拉斯 巴基斯坦

한국인은 4음절 외래어의 음절 중 주로 첫음절과 둘째 음절이 긴 경향이 있고, 일부 끝음절이 긴 ‘키리바시’, ‘모리셔스’, ‘키프로스’는 마찰음으로 끝나고, ‘파키스탄’은 종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다. 중국인도 한국인처럼 첫음절과 둘째 음절을 길게 발음하고 있는데, 한국어 외래어 음길이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실험 과정에서 분절음을 정확하게 읽기 위해 천천히 발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중국어 4음절 외래어가 2음절어나 혹은 3음절어와 다른 점은 첫째 음절과 끝음절의 길이가 비교적 길다는 것으로 이는 경계 음절의 길이를 길게 함으로써 해당 음절을 강세 음절로 만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은 5음절 외래어의 음길이 비교이다. <표 7>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음절 길이에 따른 유의미한 결과를 확인하기 어려웠는데 이는 조사 대상 단어가 충분히 많지 않았던 점, 음절이 많아지면서 각 음절의 상대적인 길이 차이가 크지 않았기 때문으로 판단한다.

<표 7> 5음절 외래어의 음절 길이 비교

	CF_Krn	CM_Krn	KF_Krn	CM_Chn
1음절	슬로베니아 타지키스탄 인도네시아	카자흐스탄 슬로베니아 인도네시아	슬로베니아 인도네시아	斯洛文尼亚 塔吉克斯坦
2음절			에리트레아 코스타리카	哈萨克斯坦
3음절	에티오피아 코스타리카	에티오피아	에티오피아	埃塞俄比亚
4음절	에리트레아 카자흐스탄	에리트레아 코스타리카 타지키스탄	카자흐스탄	印度尼西亚
5음절			타지키스탄	厄立特里亚 哥斯达黎加

이상으로 한국어 외래어 음길이에 있어 음절 구조, 마찰성, 단어 강세 등에 한국인과 중국인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한국어는 주로 첫음절 혹은 둘째 음절의 길이가 길고, 중국어는 끝음절 혹은 경계 음절의 길이가 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외래어 음길이 연구는 단어 운율 연구에 있어 중요성과 필요성이 있다.

2. 음높이

한국어의 억양에 관한 논의에서 강세구의 시작 음절에 음높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그 음높이는 시작 음절의 초성에 의해 정해지며 한국어의 강세구 억양 패턴은 이미 학자들의 공통된 견해를 갖고 있다. Jun(1993)은 악센트구(Accentual Phrase, AP)를 한국어의 운율 단위로 보고 있으며, LHLH, HHLH가 한국어의 운율 유형이라고 밝혔다.⁶⁾ 본 연구는 강세구가 아닌 외래어에서 운율 실현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2음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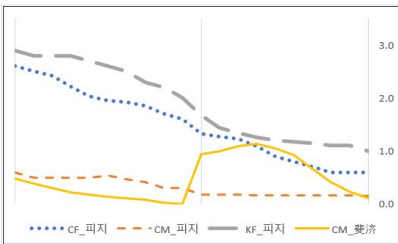
한국인의 2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유형은 <표 8>에서 보는 것과 같이 모두 단일형 HL로 실현되었다. 이는 첫음절 초성의 기식성 여부, 즉 강자음(격음 혹은 경음)⁷⁾ 여부나 음절 구조와는 상관없이 2음절 단어의 시작이므로 당연한 결과이기도 하다.

6) 신지영(2014)은 악센트구를 ‘음운구’라고 표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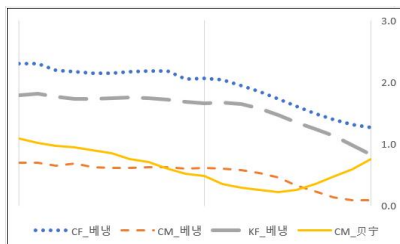
7) 국명의 외래어는 어두 음절이 경음으로 구성된 예가 없으므로 기식성만 제시하였다.

〈표 8〉 2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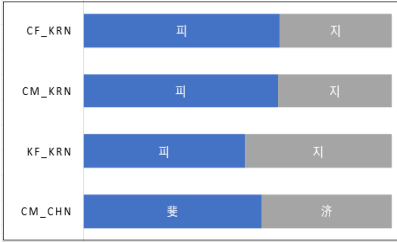
번호	국명	음절		첫음절 초성 기식성	음높이	
		1st	2nd		중국인	한국인
1	오만	CV	CVC	[-]	HL, LL	HL
2	베냉	CV	CVC	[-]	HL	HL
3	페루	CV	CV	[+]	HL, LL	HL
4	부탄	CV	CVC	[-]	HL, LL	HL
5	토고	CV	CV	[+]	HL, LH	HL
6	피지	CV	CV	[+]	HL, LL	HL
7	쿠바	CV	CV	[-]	HL,HH,LL	HL
8	가나	CV	CV	[-]	HL, LL	HL
9	가봉	CV	CVC	[-]	HL, LL	HL
10	체코	CV	CV	[+]	HL, LL	HL
11	말리	CVC	CV	[-]	HL, LL	HL
12	수단	CV	CVC	[-]	HL, LL	HL
13	통가	CVC	CV	[+]	LL	HL
14	예멘	CV	CVC	[-]	LL	HL
15	이란	CV	CVC	[-]	HL, LL	HL
16	차드	CV	CV	[+]	HL, LL	HL
17	칠레	CVC	CV	[+]	HL, LL	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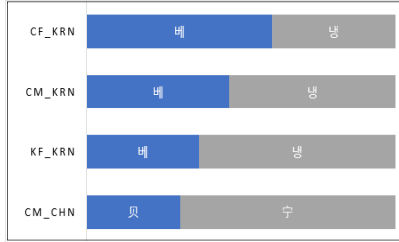
〈그림 1〉 피지(斐济) 음높이 곡선



〈그림 2〉 베냉(贝宁) 음높이 곡선



〈그림 3〉 피지(斐济) 음길이



〈그림 4〉 베냉(贝宁) 음길이

하지만 중국인의 경우 HL 외에 LL, HH의 음높이 오류 유형도 있었는데 〈그림 1〉과 〈그림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기식성 유무, 음절 구조, 중국어 성조의 영향, 정서적인 영향 등 어떤 이유를 제시하기 어려울 정도로 공통점을 발견하기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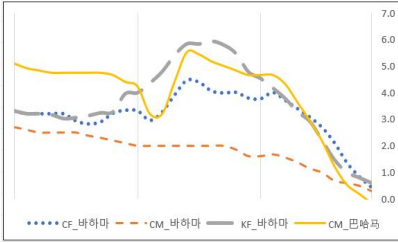
2) 3음절어

한국인의 3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유형은 〈표 9〉에서 보는 것과 같이 대부분 LHL로, 한 단어만 HHL로 실현되었다. 한국인은 ‘파나마’, ‘필리핀’, ‘캐나다’, ‘카메룬’ 등처럼 첫음절 초성에 기식성이 있을 때 반드시 첫음절을 높은 음높이(H)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고, ‘헝가리’만 높은 음높이로 실현하였는데, 이는 강세구의 음높이 패턴과는 다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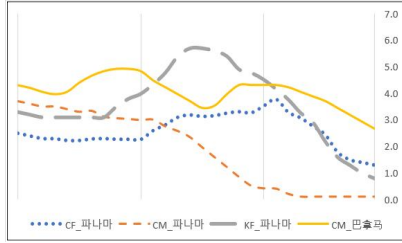
중국인도 한국인과 같이 LHL 음높이 패턴이 나타났고, 오류 유형으로 HHL, HLL이 있었는데, ‘안도라’, ‘앙골라’, ‘필리핀’, ‘멕시코’ 등 첫음절이나 둘째 음절이 CVC 구조일 때 혹은 ‘파나마’, ‘캐나다’, ‘카메룬’, ‘카타르’ 등 기식성 초성일 때 이 두 종류의 오류 유형이 종종 출현하였고, ‘수리남’, ‘잠비아’ 등의 일부 예는 LHL 없이 오류만 나타났다. 중국인과 한국인의 음높이를 비교하면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높은 음높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단어의 어두 음절에 높은 음높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표 9〉 3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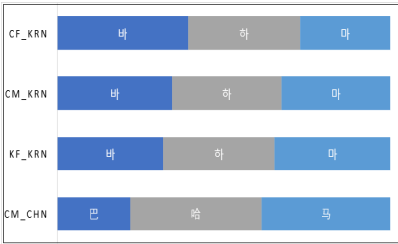
번호	국명	음절			첫음절 초성 기식성	음높이	
		1st	2nd	3rd		중국인	한국인
1	안도라	CVC	CV	CV	[-]	LHL, HHHL	LHL
2	앙골라	CVC	CVC	CV	[-]	LHL, HHHL	LHL
3	바하마	CV	CV	CV	[-]	LHL, HLL	LHL
4	파나마	CV	CV	CV	[+]	LHL, HLL	LHL
5	벨기에	CVC	CV	CV	[-]	LHL, HLL	LHL
6	벨리즈	CVC	CV	CV	[-]	LHL, HLL	LHL
7	부룬디	CV	CVC	CV	[-]	LHL	LHL
8	필리핀	CVC	CV	CVC	[+]	LHL, HLL	LHL
9	감비아	CVC	CV	CV	[-]	LHL, HHHL	LHL
10	캐나다	CV	CV	CV	[+]	LHL, HLL	LHL
11	지부티	CVC	CV	CV	[-]	LHL	LHL
12	카메룬	CV	CV	CVC	[+]	LHL, HHHL	LHL
13	카타르	CV	CV	CV	[+]	LHL, HHHL	LHL
14	코모로	CV	CV	CV	[+]	LHL, HHHL	LHL
15	레소토	CV	CV	CV	[-]	LHL	LHL
16	레바논	CV	CV	CVC	[-]	LHL	LHL
17	리비아	CV	CV	CV	[-]	LHL, HLL	LHL
18	르완다	CV	CVC	CV	[-]	LHL, HLL	LHL
19	말라위	CVC	CV	CV	[-]	LHL, HLL	LHL
20	모로코	CV	CV	CV	[-]	LHL	LHL
21	모나코	CV	CV	CV	[-]	LHL	LHL
22	멕시코	CVC	CV	CV	[-]	LHL, HLL	LHL
23	니제르	CV	CV	CV	[-]	LHL	LHL
24	세이셸	CV	CV	CVC	[-]	LHL, HHHL	LHL
25	사모아	CV	CV	CV	[-]	LHL, HLL	LHL
26	수리남	CV	CV	CVC	[-]	HHHL	LHL
27	튀니지	CV	CV	CV	[+]	LHL, HLL	LHL
28	투발루	CV	CVC	CV	[+]	LHL	LHL
29	우간다	CV	CVC	CV	[-]	LHL, HHHL	LHL
30	헝가리	CVC	CV	CV	[+]	HHHL, HLL	HHHL
31	시리아	CV	CV	CV	[-]	LHL, HLL	LHL
32	이라크	CV	CV	CV	[-]	LHL, HLL	LHL
33	잠비아	CVC	CV	CV	[-]	HHHL	LH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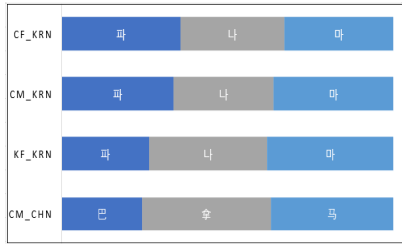
〈그림 5〉 바하마(巴哈马) 음높이 곡선



〈그림 6〉 파나마(巴拿马) 음높이 곡선



〈그림 7〉 바하마(巴哈马) 음길



〈그림 8〉 파나마(巴拿马) 음길

3) 4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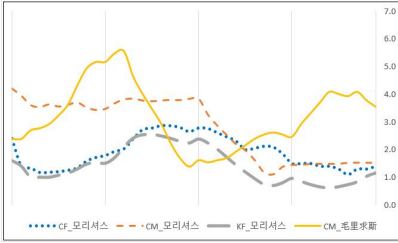
한국인의 4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유형은 <표 10>에서 보는 것과 같이 LHLL와 HHLL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어두 음절에 기식성이 있든 없든 LHLL과 HHLL이 모두 출현하였고, ‘에콰도르’, ‘보츠와나’, ‘라트비아’, ‘니카라과’처럼 둘째 음절에 기식성이 있으면 주로 LHLL로 실현하고, ‘파키스탄’, ‘키프로스’처럼 첫음절과 둘째 음절에 모두 기식성이 있어도 LHLL로 실현한다. HHLL 유형은 ‘콜롬비아’, ‘키리바시’, ‘세르비아’, ‘스리랑카’, ‘탄자니아’처럼 첫음절이 강자음일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그레나다’와 같은 약자음에도 HHLL이 출현하였다. 중국인의 오류 유형은 LHLL, HHLL, HHHL로 한국인보다 높은 성조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다. 중국인은 H보다 L을 더 많이 표현하도록 주의해야 한다.

한 단어만 HHL로 실현되었다. 한국인은 ‘파나마’, ‘필리핀’, ‘캐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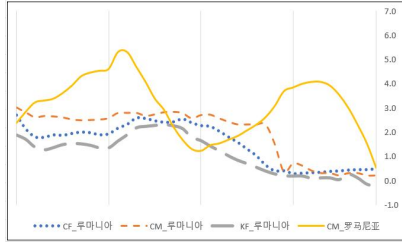
‘카메룬’ 등처럼 첫음절 초성에 기식성이 있을 때 반드시 첫음절을 반드시 높은 음높이(H)로 실현하는 것은 아니었고, ‘헝가리’만 높은 음높이로 실현하였는데, 이는 강세구의 음높이 패턴과는 다른 결과이다. 중국인의 오류 유형은 LHHL, LHLL, HHLL, HHHL가 있는데 오류의 어떠한 규칙성을 발견할 수 없다. 4음절어도 3음절과 마찬가지로 중국인은 한국인보다 높은 음높이를 사용하는 빈도가 높으며, 단어의 어두 음절에 높은 음높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표 10〉 4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실현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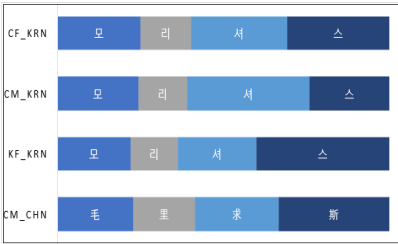
번호	국명	음절				첫음절 초성 기식성	음높이	
		1st	2nd	3rd	4th		중국인	한국인
1	파키스탄	CV	CV	CV	CVC	[+]	LHHL	LHLL
2	불가리아	CVC	CV	CV	CV	[-]	LHLL	LHLL
3	보츠와나	CV	CV	CV	CV	[-]	LHLL	LHLL
4	볼리비아	CVC	CV	CV	CV	[-]	LHLL, LHHL	LHLL
5	에콰도르	CV	CV	CV	CV	[-]	LHLL	LHLL
6	그레나다	CV	CV	CV	CV	[-]	LHLL	HHLL
7	콜롬비아	CVC	CVC	CV	CV	[+]	HHLL	HHLL
8	온두라스	CVC	CV	CV	CV	[-]	LHLL, HHLL	LHLL
9	키리바시	CV	CV	CV	CV	[+]	HHLL	HHLL
10	짐바브웨	CVC	CV	CV	CV	[-]	LHLL, HHLL	LHLL
11	라트비아	CV	CV	CV	CV	[-]	LHLL, HHLL	LHLL
12	루마니아	CV	CV	CV	CV	[-]	HHLL, HHHL	LHLL
13	모리셔스	CV	CV	CV	CV	[-]	LHLL, HHLL	LHLL
14	모잠비크	CV	CVC	CV	CV	[-]	LHLL, HHLL	LHLL
15	나미비아	CV	CV	CV	CV	[-]	LHLL	LHLL
16	니카라과	CV	CV	CV	CV	[-]	LHLL	LHLL
17	세르비아	CV	CV	CV	CV	[-]	HHLL, LHLL	HHLL
18	키프로스	CV	CV	CV	CV	[+]	LHLL	LHLL
19	스리랑카	CV	CV	CVC	CV	[-]	HHLL	HHLL
20	탄자니아	CVC	CV	CV	CV	[+]	HHLL	HHLL
21	바누아투	CV	CV	CV	CV	[-]	LHLL	LHLL
22	과테말라	CV	CV	CV	CV	[-]	HHLL	LHL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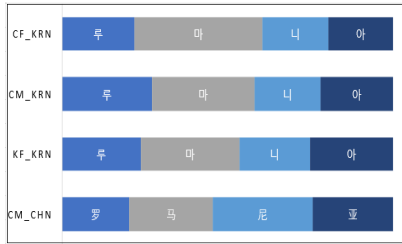
〈그림 7〉 모리셔스(毛里求斯) 음높이 곡선



〈그림 8〉 루마니아(罗马尼亚) 음높이 곡선



〈그림 9〉 모리셔스(毛里求斯) 음길이



〈그림 10〉 루마니아(罗马尼亚) 음길이

4) 5음절

한국인의 5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유형은 〈표 11〉에서 보는 것과 같이 데이터가 많지 않아 유의미한 결과라고 보기 어렵지만, 7개 단어로만 살펴 보면, 음높이 유형은 LHLLL, HHLLL, HHHLL가 있다. 음높이 유형에서 어두 음절에 기각성이 있으면 H로 시작하는 비율이 높고, 음절 구조와의 연관성을 언급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중국인의 오류 유형은 LHHHL, LHLHL, HHHHL로 5음절어에서도 여전히 한국인보다는 높은 성조의 출현 빈도가 높다.

〈표 11〉 5음절 외래어의 음높이 실현 양상

번호	국명	음절					첫음절 초성 기식성	음높이	
		1st	2nd	3rd	4th	5th		중국어인	한국어인
1	에티오피아	CV	CV	CV	CV	CV	[-]	LHHHL LHLHL	LHLLL
2	에리트레아	CV	CV	CV	CV	CV	[-]	LHHHL HHHHL	LHLLL
3	코스타리카	CV	CV	CV	CV	CV	[+]	LHLLL HHHHL	HHHLL
4	카자흐스탄	CV	CV	CV	CV	CVC	[+]	HHHLL HHHHL	HHHLL
5	슬로베니아	CVC	CV	CV	CV	CV	[-]	HHLLL	HHLLL
6	타지키스탄	CV	CV	CV	CV	CVC	[+]	HHHLL HHHHL	HHHLL
7	인도네시아	CVC	CV	CV	CV	CV	[-]	LHLLL HHLLL	LHLLL

이상으로 볼 때, 한국어 외래어의 음높이 유형은 강세구(엑센트구)와는 다르며 중국어인 한국어인보다 높은 성조를 자주 사용하고, 시작 음절에서 높은 성조를 자주 실현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향후 강세구나 억양구의 음높이 연구에 이어 단어의 음높이 유형에 관한 연구도 필요하다. 단어 종류, 음절 수, 음절 구조, 자질 등에 따라 음높이 유형의 변화가 있을지 앞으로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하다.

IV. 결론

본 논문은 성조언어인 중국어를 모어로 하는 학습자가 비성조 언어인 한국어를 발화할 때 단어 음높이나 음길이에 어떠한 특징이 있는지를 고

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그중 특히 외래어의 강세 패턴이나 음길이 차이 등의 운율적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한국어 외래어의 음높이 패턴은 강세구와 실현 양상이 다르다. 한국인이 발음하는 외래어의 음절 길이와 높이는 주로 음절 수와 음절 구조에 따라 달라지며, 초성의 기식 여부가 하나의 원인이 될 수는 있지만 절대적인 역할을 하는 것은 아니다.

중국인이 발음하는 한국어 외래어 음절 길이와 높이는 음절 구조, 자음과 모음의 종류, 첫음절 초성에 기식성에 영향을 받는다.

한국어 외래어의 피치 유형으로 2음절 HL, 3음절 LHL, HHL, 4음절 LHLL, HHLL, 5음절 LHLLL, HHLLL, HHHLL, HHHHL로 나타났으며, 중국인의 한국어 외래어 음높이 오류는 높은 성조(H)의 실현 빈도가 높고, 첫음절에 높은 성조(H)를 자주 사용한다는 점이다.

이상으로 볼 때, 지금까지 한국어의 운율은 주로 억양(intonation) 중심으로 연구되었는데, 외래어처럼 단어 내의 운율(길이나 높이)도 연구의 필요성이 있고, 한국어교육에도 활용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 권성미,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중간언어에 나타나는 억양의 특성 연구 -문두 강세구와 문말 억양을 중심으로>, 《이중언어학》 제45집, 2011.
- 권영실, <중국어 억양교육에 있어서 강세에 대한 이해와 교수법>, 《중국어교육과연구》 제11집, 2010.
- 김민경, <중국인 학습자의 한국어 피치 패턴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단채미·박덕유, <중국인 학습자를 위한 외래어 교육 연구>, 《교육문화연

- 구》 제26권 제6호, 2020.
- 미설, 《중국어 성조가 한국어 동형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영향 연구》, 한국외국어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 신지영, 《한국어의 말소리》, 서울: 박이정, 2014.
- 양순임, 〈한국어 발음 교육에서의 길이〉, 《우리말연구》 제26집, 2010.
- 윤영숙, 〈낭독체에 나타난 중국인 학습자들의 운율구 실현 양상-청취실험을 바탕으로〉, 《음성과학》 제15집, 2008.
- _____, 〈중국인 학습자들의 한국어 강세구 실현 양상과 오류진단 및 교정 방안 연구〉, 《말소리와 음성과학》 제4집, 2012.
- 이경재·최성희·최철희, 〈중국인 유학생과 한국인 대학생의 단어 음절 수에 따른 한국어 단어 강세 비교〉, 《언어치료연구》 제22권, 2013.
- 이미경, 〈중국어 음높이의 형판 고찰〉, 《중국언어연구》 제45집, 2013
- _____, 〈중국어 조와 一의 변조 고찰〉, 《중국어 교육과 연구》 제38집, 2022a.
- _____, 〈중국어 부사 就의 강세와 의미 관계 고찰〉, 《중국문학》 제112집, 2022b.
- 이소영, 《한국어 교육에서의 외래어 수용 양상과 변천 과정》, 건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2.
- 임철성·郭一誠,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음장 오류 연구-상해 지역 초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국어교육학연구》 제49집, 2014.
- 정명숙, 〈일본인과 중국인의 한국어 억양〉, 《한국어교육》 제14집, 2003.
- Liu Siyang, 《중국인의 한국어 한자어 발음에 미치는 중국어 성조의 영향: 동형동언어를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Jun, S.-A.. *The phonetics and phonology of Korean prosody*. Ph.D. Dissertation, the Ohio State University, 1993.
- Jun, S.-A.. *K-ToBI(Korean ToBI) labeling convention*. Retrieved from <https://escholarship.org/uc/item/2h69k4m7#page-153>, 2000.

<Abstract>

This paper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itch and duration in the speech of Chinese speakers, who have Mandarin as their mother tongue, when speaking Korean, a non-tonal language. Especially, the paper focuses on prosodic features such as stress pattern and duration differences of loan words.

The pitch pattern of Korean loan words has a different pattern from accentual phrase. The syllable length and pitch of loan words pronounced by Korean mainly depend on the number and structure of syllables, and the presence of an initial consonant can be a cause, however it is not absolute either.

The syllable length and pitch of Korean loan words pronounced by Mandarin speakers are affected by the syllable structure, the types of consonants and vowels, and the aspirated feature of the initial consonant.

The pitch types of Korean loan words are identified as 2-syllable word HL, 3-syllable word LHL, HHL, 4-syllable word LHLL, HHLL, 5-syllable word LHLLL, HHLLL, HHHLL, and errors found in pitch by Chinese speakers of Korean loan words are the high frequency of H realization and frequent use of high pitch in the first syllable.

In summary, the prosody of Korean has been primarily studied with a focus on intonation, however like loanwords, rhymes (length or height) within words also need to be studied.

Key Words : 외래어(Loan words), 운율(Prosody), 음높이(Pitch),
음길이(Duration), 국명(Name of Country).

